



‘숲으로 만드는 평화와 번영’에 350만 힘 보태

박 총재, 남북산림 협력 국민 공감대 확산 활동 약속



◇박종환 총재가 9월 19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서 개최된 산림청 주최 ‘숲으로 만드는 평화와 번영, 새산새숲’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은 9월 19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 산림청 주최로 개최된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 기념 ‘숲으로 만드는 평화와 번영, 새산새숲’ 행사에 동참, ‘남북 산림 협력’을 위한 민간 차원의 국민 공감대 확산 활동에 집중할 것임을 선언했다.

강원 고성 산불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산림 경관 회복과 숲으로 만드는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박종환 총재를 비롯해 한승경, 전인범, 허상호, 이연주 부총재 등 임원들과 이영석 서울시지부 회장 등 시·도지부 회장단, 김복규 서울 중구지회 회장 등 시·군·구지회 회장과 유재일 강원 고성군지회

회장을 비롯한 고성군지회 회원 70여 명이 참석해 국민과 함께하는 숲속의 한반도를 만들어 평화와 번영이 이뤄지길 기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박종환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자유총연맹은 ‘한반도 숲 가꾸기’ 추진단을 전국적으로 구성해 역점 추진하고 있고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 두 정상은 남북 간 신뢰를 공고히 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나갈 중대한 전환점으로 ‘남북산림 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며 “황폐해진 북한 산림을 복구하는 것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국토관리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며 향후 적극적 활동을 약속했다.

창립 65주년 유공직원 해외 연수

전국 사무처 26명 ‘민족의 성산’ 백두산 올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은 8월 27~31일, 4박 5일에 걸쳐 백두산과 고구려 유적지,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견학하는 창립 65주년 기념 유공 직원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본부 직원, 시·도지부 사무처장, 시·군·구지회 사무국장 등 유공직원 26명으로 구성된 해외연수단은 8월 27일 연길과 용정을 거쳐 28일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다. 이어 해외연수단은 셋째 날인 29일 집안시의 광개토태왕비 등 고구려 유적지를 찾아 당시 동아시아의 강자로 군림했던 고구려의 웅혼한 기상을 되새겼다.

해외연수단은 단동으로 이동, 31일 안중근, 신채호, 이회영 등 많은 우국지사들이 옥고를 치르거나 순국한 장소인 항일독립운동의 유적지, 여순감옥을 찾아 참배하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숨결을 느꼈다.

한편 해외연수단은 이날 저녁 ‘해외에서 바라본 우리 자총인의 발전적인 자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결의했다.

이번 해외 연수에 참여한 윤성혜 경북 청도군지회 사무국장은 “이번 연수는 뜻깊고 찬란했던 역사, 아픈 과거를 모두 경험할 수 있었던 잊지 못할 값진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관련기사 12면>



COVER STORY

안갯속 동북아 정세

한·일 무역전쟁, 현안과 돌파전략 정인교
中·러의 동북아 팽창과 한·미·일 협력체제 박영준
北 저고도·정밀 타격 능력, 유사시 ‘큰 위협’ 김대영

집중분석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산업 현장 | 조동근

심층분석 한·일 청구권 협정, 毒이 됐다, 藥이 됐다 | 최익재

전문법칼럼 ‘평화체제’ 하의 유엔사 존속 문제 진지한 검토 필요

사회비평 국가가 책임질 수 없는 개인의 행복 | 신중섭

포커스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의미와 영향 | 이면우

뉴스초점 연속되는 북한 도발의 의도와 대응전략 | 남광규

시사진단 한·일 갈등을 바라보는 중국, 한국의 선택은? | 강준영

긴급진단 탈북 母子 사망으로 돌아본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 이철우

세계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치킨게임 가속화 | 이장훈

기획연재

북한지역 연구②
통일 광물자원의 보물고, 함남 단천시

건강한 100세 시대

위암 | 김철수

영화 리뷰

봉오동 전투 | 박진석

• 편집실 ☎ 070-7122-8057

